



축구 게임의 법칙과 라파엘로 미술, 그리고 리버풀로 가는 스피릿 여행

예술과 사회에서의 조화의 의미

일시; 2012년 5월 12일(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영국 리버풀 워커 아트 갤러리 (Walker Art gallery, Liverpool, U.K)

진행자; 전하현 강사 (런던 시인의 문화학교, Rp' Institute)



〈비틀즈의 도시로 살아남은 리버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국의 거리와 자연, 미술관, 사람이 서있을 수 있는 장소면 어디서나 열릴 수 있는 열린 학교, 열린 교실, 열린강좌 강사 전하현입니다. 오늘은 멀리 새벽부터 기차를 타고 리버풀로 왔습니다. 오늘 워커 아트 갤러리에서 주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리버풀 도시를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베트남 전쟁 반대 운동을 하면서 집회에 참여해 노래를 부르는 존 레논〉

리버풀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비틀즈의 고향으로 너무나 유명하죠. 1960년 미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를 제치고 혜성같이 나타나 세계의 음악계를 지배하고 오늘날 영국의 팝음악의 기초를 만들고 다진 것이 바로 비틀즈입니다. 벌써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많은 세계의 팬들이 잊지 않고 성지처럼 방문하고 리버풀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비틀즈입니다.

특히 멤버중의 하나인 존 레논은 70년대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기수로써 당시 닉슨 대통령 정부의 제 1의 퍼블릭 에너미로 지목될 정도로 많은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노래 이메진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노래중 탑 순위에 뽑히고, 지금은 대중가요가 아니라 클래식의 반열에 편입되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리버풀 축구단이 더 알려져 있는 것 같죠. 붉은 유니폼의 리버풀은 요즘 성적이 좋지 않지만, 맨체스터 구단과 함께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강팀입니다.

1. 도시 조형물 엿보기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리버풀의 두 거리

〈UNESCO에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19세기의 도시, 리버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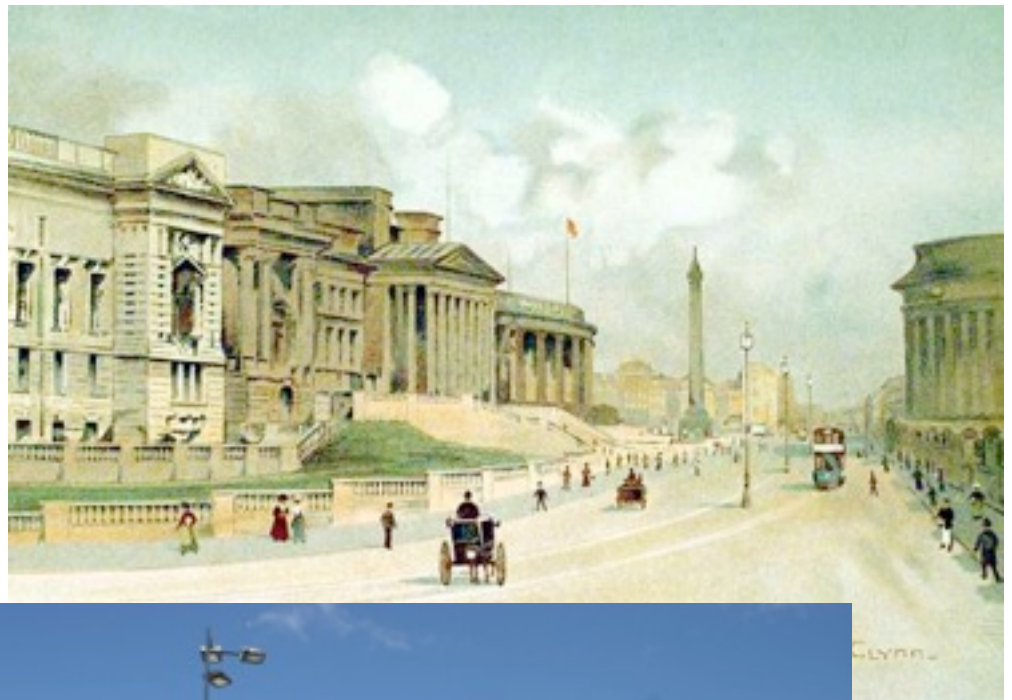


앨버트 도크(The Albert Doc)



<100여년 전의
William Brown
Street>

윌리엄 브라운
스트리트
(William Brown
Street)





리버풀(Liverpool) 1207년에 보로우(borough)로 시작하여 800여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 영국의 시입니다. 보로우라는 것은 작은 시를 나타내는 지역 단위를 뜻하는 말로 서울의 한 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울이 십 수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듯이 런던도 33개의 보로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몰든은 킹스톤 브로우에 속해 있고, 레인즈 파크와 워블턴은 머튼 브로우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보로우로 시작한 리버풀은 식민지 개척과 노예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대영제국으로 발전하면서 가장 대영제국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는 시중의 하나입니다. 예를들어 영국의 요크시가 가장 잉글랜드적인 대표적인 시라고 한다면, 리버풀은 가장 유나이티드 킹덤적인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리버풀 항구가 세계 교역량 중 40%를 차지했다고 하니 얼마나 번성하고 화려한 전성기를 갖고 있었는가 짐작할 수 있겠죠. 이러한 도시의 역사로 길거리와 항구의 부분이 2004년에는 세계 문화 유산으로 (UNESCO)에 지정되었습니다.

테이트 리버풀이 있는 [앨버트 도크\(The Albert Doc\)](#), 또 이 근처의 항구 주변 건물(The Liverpool Maritime Mercantile City), 워커 아트 갤러리, 세인트 조지홀, 라임 스트리트 역이 있는 주변의 거리인 [윌리엄 브라운 스트리트\(William Brown Street\)](#) 등이 세계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거리입니다. 이들은 1846년에서 1860년대에 조성된 것으로 불과 150년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이고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를 둘러보면 언제나 전 유명도시를 걷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이번에 세번째 방문에는 과연 어떤 기분이 들것인가? 약간은 들뜬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저희 일행들이 스피릿 기행으로 리버풀에 온 것은 바로 150년 전 대영제국의 중심으로 들어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또 다른 세계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수백년 동안 국제적 항구로써 세계 교역의 중심지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와 정착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리버풀은 브리티시적인 도시입니다. 시 내부의 인구는 약 45만, 시 주변의 86만을 합쳐 약 130만의 인구중 백인이 91%,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인 등이 역 3%, 흑인이 1.9%, 중국인이 2.1% 혼혈이 2%로 90%가 넘는 백인 중심의 도시입니다. 이 91%의 백인 중에도 오리지날 영국 백인이 86%에 아이리쉬가 1%로 보수적인 인구성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최근 새로운 국제 문화 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하드웨어는 있는데 그 변화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건물들은 1800년대 지어진 것들이 대부분으로 신고전주의 양식을 띄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일찍와 워커 갤러리가 열기전까지 서성거리던 라임 스트리트 역전 맞은 편 큰 대형 고전 건축물, 조지 세인트 홀이 바로 대표적 신고전주의 건물입니다. 19세기의 건물들을 유산으로 간직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 거리가 바로 윌리엄 브라운 스트리트(William Brown Street)입니다.

이 건물들은 과거에는 대영제국의 영광과 번영을 그득담고 화려함과 권위를 뽐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문화 예술을 담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합니다. 항구의 수출입 물관 보관 창고, 미국으로 보낸 노예를 임시로 가두었던 곳, 근처의 맨체스터 지역에서 생산하던 섬유를 저장하고, 웨필드 등지에서 생산하던 기계를 보관하던 곳이 오늘 날 문화를 보급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변신하며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탈바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국의 어디에서나 볼수 있듯이 정신문화의 빈곤을 보고 있습니다.



〈Liverpool Cathedral, 영국 성
공회 교회〉



최근에 지어진 두 대형교회는 그것을 상징하고 있는 듯 보이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영국성 공회 건물(Liverpool Cathedral)입니다. 길이가 189m, 가로가 146m, 건물 본체의 높이는 30m입니다. FIFA에서 지정한 국제 경기를 치를수 있는 축구장의 규격이 세로 105m, 가로 68m이니 국제 구장보다 2배 이상의 면적이고 높이는 보통 빌딩 10층의 규모입니다. 게다가 타워는 100.8m로 33층 건물의 높이로 이 대형 성당은 멀리서 보면 짙은 붉은 색조의 벽돌 건물로 묵중한 분위기로 전체 시를 장악하고 있는듯한 위엄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보면 마치 변질된 기독교 괴물, 마치 웅크려 있다 언제 일어설지 모르는 몬스터 같 기만 합니다. 이 건물의 양식은 1840년대부터 20세기 초까지 유행하던 빅토리안 고딕 (Victorian Gothic) 혹은 네오 고 딕(Neo-Gothic) 스타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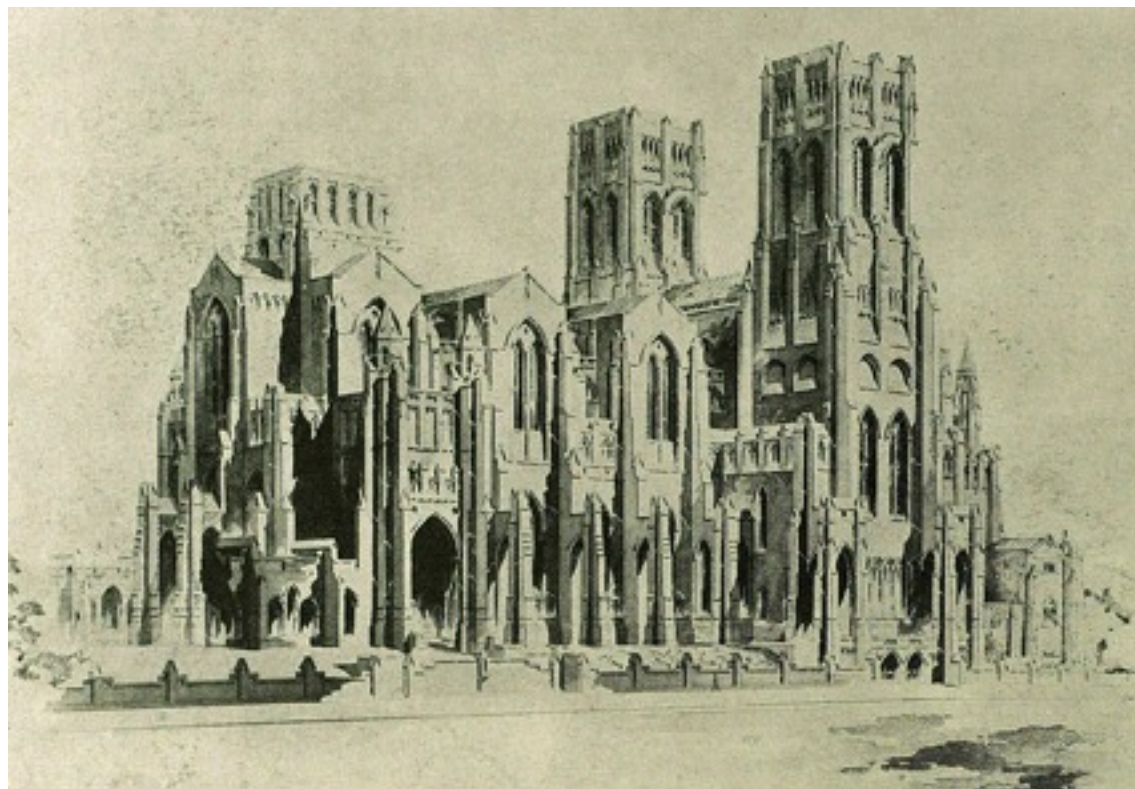


원래 이 성당은 빨간 전화기 박스를 디자인하고 현재의 테이트 모던이 들어선 건물, 60년 전의 화력발전소 건물의 외양을 아르 데코 식으로 디자인한 질 길버트 스코트 경(Sir Giles Gilbert Scott, OM, FRIBA, 1880 - 1960)의 작품입니다. 그의 아버지 조지 길버트(George Gilbert Scott, Jr. 1839-1897)도 건축가로 런던의 텔위치 갤러리가 있는 Dulwich College in South London를 디자인하고 캠브리지 대학의 Christ's, Pembroke and Peterhouse를 디자인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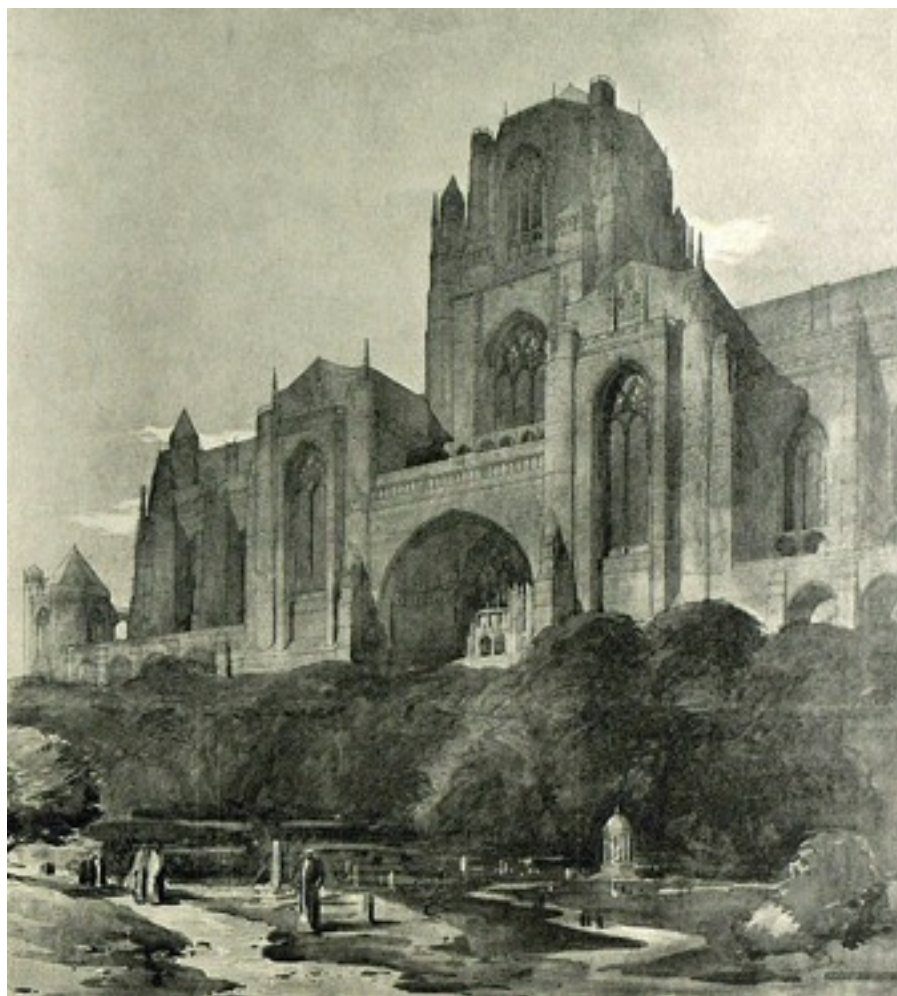
거의 100여년간에 걸쳐 건물을 지어 스코트 경은 유감스럽게도 완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도 사라져 그 큰 건물의 안쪽 깊이 한구석에 예배장소로 마련하고 내부 면적의 90%이상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과 관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치 거대한 고래 몸에 고래의 뇌 부분을 보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드는데, 그것이 오늘날 영국의 몸체의 현

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출입구에 있는 동상은 오늘날 영국의 컨템포러리 아트의 현주소를 적절하게 대변해 주고 있는 듯 합니다.



〈1903년 공모 당시 디자인〉





〈현재 성당의 정면앞과 측면〉



(아래) 성당의 기저귀를 차고 있는 듯한 몬스터,
신상은 묘한 리버풀의 부조화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위, 안토니 곰리의 작품〉

마치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일그러지고 변태적인 미적 감각과 비교적 감각있는 선을 유지하고 있는 참신한 터너 프라이즈의 수상자인 안토니 곰리(Antony Mark David Gormley OBE RA)의 선과 균형을 혼합해 섞어 놓아 기묘한 몸에 기저귀를 차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의 예수님의 표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같아 정말 을씨년스럽고 처량하게 보입니다.



〈 George Dock Building, downtown Liverpool〉

오늘 리버풀 스피릿 예술기행의 주제가 조화입니다. 아르 데코의 진상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의 어글리 미학은 이 몬스터 성당의 건축과 조각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대영제국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처럼 또 다른 몬스터 조각상이 바다로 가는 강의 하구변 대형건물과 그 조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을 본 한 한국의 미대생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속에 나오는 악의 집단의 소굴을 연상시키네요.'라고 말합니다. 아무리봐도 그 학생의 시각처럼 저도 보입니다.

의 저편으로 가는 터널을 연결하는 이 건물(George's Dock Ventilation and Central Station of the Mersey Road Tunnel)은 아르 데코 식으로 지어진 1930년대의 건물입니다. 성당에서 보이는 것 같은 둔탁하고 무거운 골조는 정말 묘하게도 대영제국의 추한 얼굴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것 같이 보입니다.



이 건물의 조각상도 재미있습니다. 밤과 낮을 의미하고 있는 조상은 이집트의 미의식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안 제국의 유산에 이집트 미의식을 추가하고 1930년대의 모더니즘을 더한 결과 이같은 조형의식이 탄생한 것입니다. 이같은 소화불량의 미의식은 다문화의 무리한 조합과 정제되지 않은 욕망, 걸러지지 못하고 순화되지 못한 미의식의 불협화음이 표현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George Dock Building,
downtown Liverpool,
Sculptor: Edmund C.
Thompson〉





〈리버풀 최고의 부조화스런 이 성당은 오늘날 영국의 부조화스런 모습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아래는 리버풀에서 두번째로 부조화스런 건축미를 자랑하고 있는 독크 주변의 건물〉



예술과 사회에서 만나는 조화의 부조화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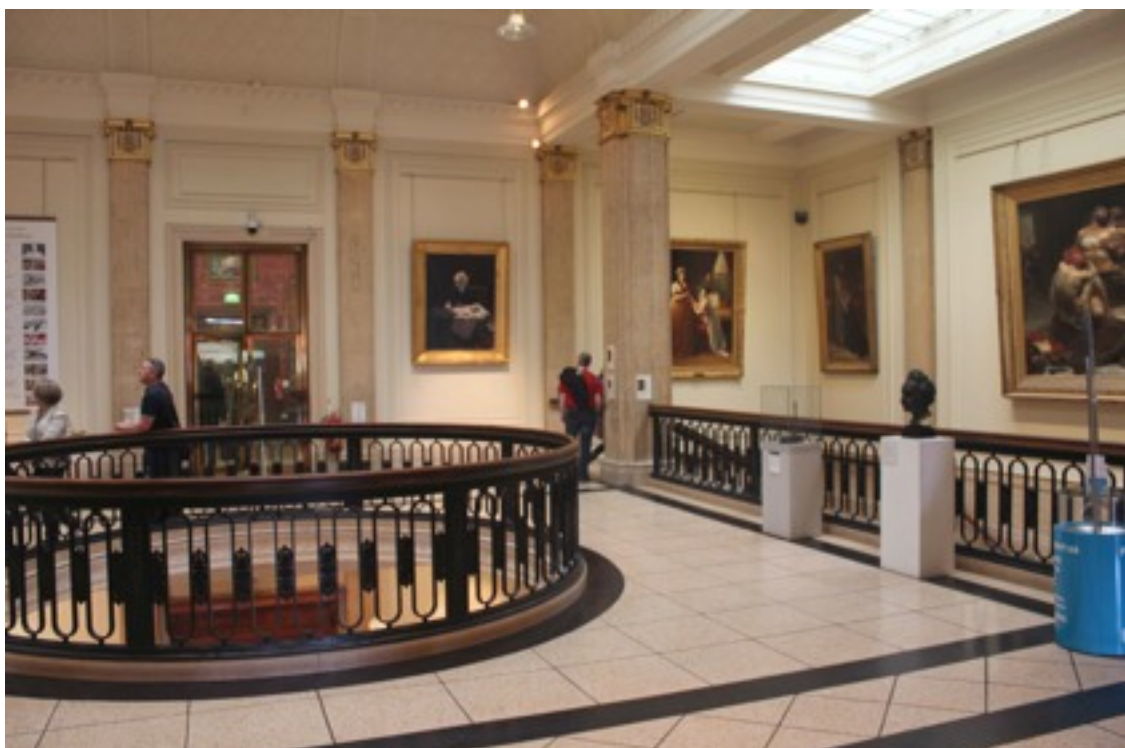


이런 부조화스런 도시 이미지의 조형물이 시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당국과 브리티시 정부는 죽어가는 도시를 소생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미술품들을 지원하여 두번째로 현대 미술의 메카로 키우려는 전략으로 테이트 모던을 설립하고 다양한 현대미술전을 열고 있습니다. 또 박물관을 증축하고 새박물관사를 짓고 워커 아트 갤러리(The Walker Art Gallery)는 지방의 미술관 같지 않게 1877년 설립되어 고딕시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미술품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The Walker Art Gallery 입구와 아래 사진 실내.





위커 미술관의 소장품을 둘러보며 조화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위) 한스 홀베인 영거의 헨리 8세



엘 그레코









오늘 전 시니컬하게 리버풀의 문화현장을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주변의 인구까지 서울의 한 구에 지나지 않은 작은 도시의 문화적 유산이 서울 전체를 합해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서글픔 때문입니다.

이번 예술 기행 강좌의 주제가 ‘조화와 부조화’라 이렇게 비판적 자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워커 미술관에서 두번째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토론 참석 대담자,

박성지 (첼시 fine art 3년), 조광현(홍익대학원 도예과), 김영달 박사(전기공학)

주제/ 예술과 사회 그리고 21세기의 새로운 조화의 의미

제 1토론 주제 조화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제 2토론, 내가 생각하는 내 삶 속에서의 조화의 의미

<글, 강의/ 전하현>

영국에서 글로벌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전방위 문화기획자이자 칼럼니스트. 국내 여러 기관에서 미학과 민속학, 동양사상을 강의했으며, 현재 런던에서 동,서양 전통 미학 비교, 미디어와 대중문화 등을 연구하는 동시에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신춘문에 수필 부문으로 등단하였으며, 시인으로 세 권의 시집을 펴냈다. 또한 현대무용 대본을 집필하고 연출하는 등 문화예술 영역 전반에서 폭넓게 활동했다. 사우스 템스 칼리지(South Thames College)에서 TV 연출론을 연구하면서 영화/영상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런던시티 대학교에서 창조문화산업 경영 과정을 수료했다. 2005년에 런던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문화사학교인 ‘런던 시인의 문화학교’를 개설해 1,000여 명의 수강생과 창조문화산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출했다. 2010년부터는 런던 시인 문화학교의 열린강좌, <크리에이티브 클래스>, <그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감동의 기술>,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와 여성>, <바르비종파가 바꾼 세상의 풍경들>, 등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런던을 비롯한 영국 각지에서 정기강좌가 진행 중이다.

저서로 『스물이 되기 전에』, 『바르비종과 사실주의』, 『인상주의』, 『인상주의II』 등을 집필하였다.